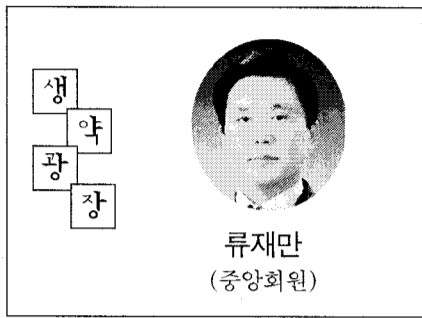


# 우리 생약의 세계화 희망

한국의 국토는 비록 적지만 사계절이 뚜렷이 있고 아기자기한 산야는 전체가 절경이듯이 그 성분, 성상 또한 다양한 것을 내포하고 있다. 어느 산이든 산상에서 산하까지의 토색은 음양오행의 조화에 맞게 여러 가지 색으로 나타나며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분토화(粉土化)기질이 있어서 금속성 미네랄의 원소이온화가 잘되므로 이에따른 촉비작용으로 유익한 약리효과 또는 기능성 영양효과가 똑같은 외국생산물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많다.

그러나 화학비료의 남용과 맹독성 농약 농업화는 양적 증산에는 성과가 컸다 할지라도 질적으로는 농약 오염, 미네랄성분을 비롯한 유효성분 감소의 문제점을 낳고 말았다. 또한 같은 농토에서 연작하는 경우의 생산생약은 그 질이 떨어진다. 그 원인은 토양의 산성화 때문이다. 토양의 이온화 정도가 많은 젊은농토에 비해 산성토양의 경우 토양의 무기질성분 비수용성의 고분자물질이 많아 생산성과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측면을 고려할 때 생약의 재배생산에도 보다 구체화한 과학영농법 마련이 우선 시급한 현실이다.

둘째는 한약재를 활용해 가공식품 개발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류재만  
(중앙회원)

방안마련이 필요한 시기다.

생약을 활용한 건강식품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국산한약재도 해외로 다량 수출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수입해 간 한약재 원료를 이용해 미국 등지에서는 이를 활용, 기능성 건강식품을 개발하고 이렇게 생산된 건강식품들은 다시 우리나라로 역수출하고 있는 추세다. 고가의 수입 건강식품이 소비시장을 주도하고, 약재시장, 건강원 등에서는 값싼 중국산 약재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가하면 우리나라 생약으로는 최고위에 있는 인삼이 국제전에서 중국산, 미국산, 캐나다산 인삼들의 협공에 무척 힘든 교역전을 벌이다가 조상님의 지혜인 홍삼가공 제품의 기술로 조금은 유리한 시장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실전에서 보고 확인하였지만 싸구려 저질보조품으

로 진짜 홍삼이 설자리를 뒤흔드는 -제살 깎아먹기-는 앞으로 얼마나 버티게 할지가 걱정이 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이같은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한약재를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정에서도 보다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생약을 무조건 끓이면 당아미노산등의 유효성분을 상실하게되어 생약효과가 반감된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약을 방부, 보존제 처리 없이 어떻게 하면 벌레없이 썩지않게 보관할 수 있겠는가. 보다 효과적인 생약배합법 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표백제나 중금속,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고품질의 국산 한약재를 생산할 수 있는 재배관리 방안에서부터 생약의 고유성분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가공기술 개발에 이르기까지, 이젠 단순한 농사꾼의 시각이 아니라 총체적인 생약산업 육성 차원으로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생산농민들에게 생약가공은 다소 거리감이 느껴지는 낯선 분야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개척자적인 자세로 생약산업에 참여하여 보람을 만들어 가야만 한국생약의 세계화에 희망이 펼쳐지지 않겠는가.

## 해양생물에서 한약재 개발 연구

해양생물을 한약재로 사용할 수 있을까. 국내 처음으로 해양생물에서 한약의 재료를 개발하는 연구가 본격 추진돼 관심을 끌고 있다.

부경대는 31일 한약재개발연구소(소장 김세권 화학과 교수) 문을 열고 해양생물을 통해 새로운 한약재 개발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해양생물에서 한약재를 개발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는데 갑각류는 항암 및 고혈압에, 패류는 뇌졸중 방지에, 해조류는 감기와 폐질환 및 위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갑각류인 게와 새우 껍데기에는 최근 주목받는 키틴이 다량 함유돼 있는데 이는 셀룰로오스 다음으로 많은 미이용 자원이며 현존하는 최후의 생물질(biomass)로 꼽힌다. 또 키토산은 항암활성은 물론 항균, 항곰팡이 활성이 높고 혈액 및 간장 중에 콜레스테롤 개선작용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패류는 강력하고 특이한 생리활성으로 혈액의 응고억제 및 면역활성 증강 등에 좋아 천연약재의 잠재력이 크다.

### ◎ 집중분석 / 건강기능식품시행이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

## GAP 약용작물 계약재배 활성화 기대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능성 식품에 대한 수요증가와 생약재를 활용한 건강보조식품 시장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올 한해 건식시장에서 태풍의 눈은 바로 8월부터 발효되는 건강기능식품법.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 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취지에서 발효되는 건강기능식품법은 그간 모호하게 사용돼오던 식품의 명확한 정의와 함께 영업허가, 용기, 표기 등은 물론 표시기준, 허위, 과대광고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과 함께 제조업체가 제품효과 등을 허가받으면 이를 광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하게되며 이를 통한 시장활성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제품력과 연구경쟁력을 갖지 못한 업체들은 시장에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건강기능식품법의 발효가 생약농업부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어떤 것일까?

6월5일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열린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과 농업계의 과제" 토론회에서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이 원료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업부분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것이란 의견이 설득력있게 제기됐다. 특히 산지 농산물가공산업은 건강기능식품법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법의시행은 농업분야에서도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건강기능식품법의 발효는 우선, 기능성식품의 수요확대와 시장활성화라는 긍정적 기대치가 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품목허가와 기능성표시가 이뤄지게 되어 건강기능성식품의 효능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지게 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수요가 확대되고 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것. 건강기능식품의 수요변동은 그 원료가 되는 생약재의 수요확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기능성 성분을 강화한 농산물 즉 고유성분 함량의 고품질화를 통해 차별화한 생약재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예를 들면 GAP(우수약용작물재배관리규범) 인증을 획득한 제품과 기능성건강

식품을 개발 생산해내는 대기업식품업체들과의 계약재배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신제품개발 추진도 기대된다. 건강기능식품산업이 고성장, 고부가가치의 미래유망산업으로 부각되면서 기업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위하여 신소재, 신물질 개발과 제품화를 위한 노력도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또 종전에는 식품공전에 규정되지 않은 물질의 식품사용을 금지하였으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만 있으면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 규제완화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제조시설의 허가요건 강화는 기업의 투자시설부담을 초래하고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실험역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조시설의 기준이나 안전성 및 기능성 평가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게 설정될 경우 경영규모가 영세한 벤처형 바이오업체나 농촌형 가공공장들의 기업활동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부정적 지적도 있다.

또한 산지 농산물가공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산지 농산물가공업체에서 동충하초제품, 생약재발효식품, 장생도라지제품, 가시오가피제품을 비롯하여 다양한 건강보조식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정해진다면 매출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산지 농산물가공산업을 고성장,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품들이 기능성에 대한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엄격한 평가기준을 적용할 때 건강기능식품으로 승인 받기 힘들다는 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산지 농산물가공업체의 생산제품이나 국내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제조시설 허가기준, 기능성 및 안전성 평가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실정을 반영하거나 특별한 지원혜택이 강구될 수 있도록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시장동향을 파악하여 그 소재가 되는 농산물의 생산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생약농업도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농사법에서 벗어나 이제는 수요추세에 맞춰 새로운 작물 생산을 시도하고 제품을 차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문정희)